

고진영 “상대 긴장시키는 선수 되고 싶어”

“우즈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7)은 이렇게 말했다.

16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고진영은 지난 6일 싱가포르 센토사골프장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2022시즌 4차전 HSBC위민스월드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LPGA투어 통산 13승째로 그는 최근 10개 대회에서 무려 6승을 쓸어담는 ‘넘버 1’ 파워를 과시했다. 13승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우승을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사이 만들었다.

고진영은 뒤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선두 상대를 압도한다. 그는 2019년 4월 메이저 ANA인스퍼레이션 우승 직후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이후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려 1년 11개월 동안



▲ 고진영, 사진=세마스포츠마케팅

안 정상을 지켰다. 지난달 초에는 벨리 코다(미국)에게 내줬던 1위도 탈환했다. 또 LPGA투어에서 첫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작성했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30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도 이어갔다. 두 기록 모두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보유하고 있던 진기록이다. 2019년에는 114홀 연속 ‘보기 프리’ 기록을 세우며 우즈(110홀 연속)도 넘어섰다.

고진영은 HSBC위민스 우승 후 사흘 만에 연습에 나설 만큼 ‘연습벌레’로 유명하다. 이날 고진영은 연습에 앞서 “우즈가 등장하면 상대 선수들이 긴장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고진영은 이달 24일부터 칼스배드에 있는 Park Hyatt Aviara Golf Club에서 열리는 JTBC클래식에서 이번 시즌 2승 사냥을 노린다.

다저스 한국계 투수 화이트 “우리 가족에게 다저스는 야구 이상의 의미”

LA 다저스 투수 미치 화이트(29)는 ‘코리아 특급’ 박찬호와 닮은 외모로 특히 한국 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한국계 이민 3세인 화이트는 한국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부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 야구를 시작한 그는 2016년 메이저리그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전체 65번)에서 현 소속팀 다저스의 지명을 받아 프로에 진출했다. 그리고 4년 뒤인 2020년 8월 텍사스를 상대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화이트는 16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있는 다저스 스프링캠프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된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박찬호와 닮았다는 얘기에 “나도 잘 알고 있다.”며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사용하는 단체



▲ 미치 화이트, 사진=dodgerblue.com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박찬호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화이트는 “1969년 미국으로 이민 온 외할아버지를 비롯해 우리 가족 모두는 다저스의 열렬한 팬이었다. 우리 가족에게 다저스는 야구 그 이상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내 경기를 보러 오셨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하지만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실 것이며,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서 있는 나를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21경기(선발 4회)에 등판해 46%이닝, 1승 3패 평균자책점 3.66을 기록했다.

김하성 “올해는 200% 다르다”



▲ 김하성, 사진=eastvilagetimes.com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레스)에게 천금의 기회가 찾아올까?

16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의 슈퍼스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최근 손목 수술을 받으며 약 3개월간 결장한다. 사실상 전반기는 정상 가동이 힘들다는 뜻이다.

이에 김하성은 페르난도의 대체자로 지목 받고 있다. 김하성은 2021시즌을 앞두고 4+1년 3,900만 달러에 계약하며 멀티 백업으로 뛰었다. 그러나 꾸준히 타석에 들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했다. 수준 높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에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랐고, 어쩌다 좋은 타구를 날려도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구조적, 치명적 약점마저 겹쳤다.

김하성은 유격수, 3루수, 2루수 수비력은 인정 받았다. 올 시즌에는 타격에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 마침 아담 프레이저(시애틀 매리너스)가 떠났다. 유망주 CJ 에이브람스는 곧바로 빅리그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샌디에이고로서도 김하성에게 꾸준히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 김하성은 지난 14일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본과의 인터뷰에서 “꾸준하게 출전하면 안타를 치기 시작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수비에서도 꾸준히 플레이 할 수 있다. 나는 내 수비력을 믿는다. 하지만, 타격에 대해서는 일관된 출전시간을 갖고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하성은 자신감도 드러냈다. “올해는 200% 다르다. 훨씬 편하다.”라고 했다. 향후 3개월이 김하성의 메이저리그에서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